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존 브리지스(John Bridges, 1818-1854)  
1839, 캔버스에 유채, 121.9x173.2cm,  
버밍햄 뮤지엄, 미국

**입당 송** | 시편 95(94),6-7 참조

어서 와 하느님께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제1독서** | 욕기 7,1-4.6-7

**화답 송** | 시편 147(146-147),1ㄴㄷ-2.3-4.5-6(◎ 3ㄱ 참조)

- ◎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 주신다.
- 우리 하느님을 찬송하니 좋기도 하여라. 마땅한 찬양을 드리니 즐겁기도 하여라.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네. ◎
-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네.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날날이 그 이름 지어 주시네. ◎
-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넘치시네. 그 지혜는 헤아릴

길 없네. 주님은 가난한 이를 일으키시고,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네. ◎

**제2독서** | 1코린 9,16-19.22-23

**복음환호송** | 마태 8,17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

**복음** | 마르 1,29-39

**영성체송** | 시편 107(106),8-9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네.

# 주저앉아 있지 말고 허리를 동여매고 일어납시다!



신희준 루도비코 신부 | 양천성당 주임신부 겸 제18양천지구장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영화 <기생충>의 명대사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대사를 떠올릴 때마다 참 모든 게 계획대로 순조롭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는 언제나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니까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난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미사가 중단되고 성당 문이 닫힐 줄을 말이지요? 좋아하는 부모 형제와 자녀들을 몇 년이나 만나지 못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게 될 줄을요. 또 사랑하는 이들이 투병 중에 있는데도 찾아가지 못하게 될 줄 누가 미리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는 외로움과 무력감에서 벗어나기가 이렇게 힘들 줄을 누가 알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지 못한 긍정적인 일들도 일어나니까요. 예를 들자면, 교우들과 매일 미사를 바치지 못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매일 미사에 소홀했던 저 자신을 반성하고 미사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다가 병이 나으면서 바로 봉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온갖 일에 힘들거나 실망해서, 혹은 분노하거나 아파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더

러 “허리를 동여매고 일어나”(예레 1,17)라고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 본당에서 새신부님들의 첫 미사가 봉헌될 것입니다. 새롭게 사제 생활을 시작하는 그분들이 주님 은총으로 언제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언제나 꽃길만 걷는 삶이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새신부님들이 가는 길에서 발목을 잡는 일이 간혹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의나 분노, 절망이나 슬픔에 빠져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늘 복음 말씀의 예수님처럼 분연히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사제의 신분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동반(同)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문득 시몬의 장모가 되어 봅시다. 앓고 있던 열병에서 낫자마자 예수님 일행의 시중을 든 그녀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였을까요? 한동안 앓아누워 있었던 그녀가 조금 더 누워 쉬라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일어나 봉사하면서 그녀는 아팠던 기억을 뒤로 하고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로 주저앉아 있다면, 그녀처럼 분연히 일어나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그날까지, 아멘!



##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이 성화는 시몬의 장모가 걸린 열병을 치유해 주시는 복음 말씀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시몬은 예수님 오른쪽 어깨 뒤에 죄인처럼 서 있습니다. 백발의 장인과 그를 부축하고 있는 안드레아도 보입니다. 갈색 옷의 야고보는 그간의 사정을 전하고, 한 여인은 무릎 꿇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 예수님께서 장모를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곧 가족과 모두를 위한 것임을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화  
해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 작은 변화



유임봉 스테파노 | 작가

저는 가끔 노래의 멜로디는 기억하는데 가사가 통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냥 제멋대로 가사를 바꾸어 노래 부르곤 합니다.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 멀리 뱃고동이 울리면 네가 안아 주렴.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멀리 멀리 왔다고.” 가수 김창완님의 노래 가사입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원래의 가사와는 많이 다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서, 울면서 멀리 멀리 갔다고.”로 표현된 원래의 가사는 슬픈 이별과 떠나감을 이야기하지만, 몇 개의 바뀐 단어 때문에 따뜻한 반응으로, 멀리서 온 친구를 맞이하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변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야기는 이렇게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글씨를 종이에 쓰고 돌에 새기는 캘리그래피 작가이자 새김 예술(전직) 작가입니다.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던 저는 최근 몇 년 사이 전공과는 무관한, 생소하고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16년 형님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로 저는 심한 불면과 우울에 시달렸습니다. 처방받은 약물 치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의외로 상담 치료를 위해 찾은 병원 진료실 책상에 쓰여 있던 캘리그래피 액자가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무작정 붓펜 하나를 사서 책상에 앉은 저는, 막상 무엇을 써야 하나 고민하다가 마침 책상에 있던 포켓용 성경을 펼쳐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붓펜과 붓은 다른 필기도구와는 달리 누르고 풀어 주는 힘으로 획의 굵기를 조절해야만 아름다운 글씨가 만들어집니다. 글씨를 쓰는 속도 또한 몇 배의 시간이 필요할 만큼 느립니다. 자세히 보고, 조용히 소리 내어 읽으며 천

천히 써 내려가야 본문을 틀리지 않고 옮길 수가 있어 많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몇 시간씩 작업을 해도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성경 필사를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문득 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느님께서 깊이 관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더없이 평온해지고 하루의 시간이 온통 말씀의 은총으로 채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남아 있던 슬픔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봉헌하오니, 다만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그동안 내 뜻대로 바라봤던 나는,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서만 참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과 슬픔과 분노가 아닌 평온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으며 저를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7년 전 상담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문구점에서 산 붓펜을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의 저에게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는 듯 합니다. “내가 안아줄게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멀리 멀리 잘 왔다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 지향

2월  
말기의 병자들

생의 말기에 있는 병자들과 그 가족들이 의료적 측면에서도 인간적 측면에서도 언제나 필요한 보살핌과 동반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모아주신 후원금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 전액 케냐 칸고야 지역에 진료소를 건립하는 데 지원하며 가난한 이들을 진료하고 의약품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위해 사용됩니다.

# 케냐 칸고야 마을 주민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채워주세요



“상처받고 멍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며 그를 보살피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저는 전교 가르멜 수녀회를 설립하

신 팔라우 신부님의 이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서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냐에서 의료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는 펠리스투스(Felistus) 수녀입니다. 현재 키텐겔라 지역의 성 테레사(St. Therese) 진료소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료 활동을 하고 있지요.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다른 빈민 지역에도 이동 진료를 나가곤 합니다.

그 중 칸고야 지역은 키암부 주의 빈민 지역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키암부 주의 물가로 약 200실링(우리 돈으로 약 1,700원)이면 2kg의 옥수수가루를 구입해 5명의 가족이 이를 동안 먹을 수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은 매일 한 끼의 식사마저 챙기기 어렵습니다. 먹을 음식을 구하기도 힘든 이곳 사람들이 아플 때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치료비를 지불하기도 힘들지만, 칸고야 인근에는 제대로 시설이 갖추

어진 의료 시설과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려면 20km를 걸어 시내까지 나가야 합니다. 보통의 성인이 걷기에도 먼 거리인데, 하물며 어린아이들이나 임산부들, 위급한 환자들에게는 병원 가는 일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위급한 환자들이나 몸이 약한 어린아이들은 기초 치료나 예방접종 등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받지 못한 채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내의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민간 병원의 진료비는 2,000실링(약 1만 7천 원) 이상으로 다섯 가족의 3주 식비에 달하기 때문에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아플 때 치료를 받고 건강해지는 것은 누구나 가져야 할 권리이지만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한 채 고통받는 환자들을 볼 때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빈곤과 의료 시설의 부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칸고야 주민들은 그저 고통을 참아 내거나 이동 진료소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 때문에 저와 수녀님들이 칸고야로 이동 진료를 갈 때면 진료를 받기 위해 모인 주민들로 이동 진료소는 인산인해가 되곤 합니다. 진료를 볼 수 있는 공간과 검진 장비, 의약품은 제한적인데 찾아오는 환자들은 늘고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끼니조차 챙기기 힘든 칸고야 사람들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기 위한 새로운 진료소를 짓고자 여러분께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칸고야 지역에 진료소가 지어진다면 2천여 명의 이 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치료받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고통을 참아내지 않아도 되고, 저희는 독감이나 폐렴, 풍토병 등의 질병에서 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의 자녀들인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돌보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를 청합니다.

케냐 전교 가르멜 수녀회 펠리스투스(Felistus) 수녀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004-42945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24년 2월 3일~3월 1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위해 씁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① 인터넷 신청: www.caritasseoul.or.kr > 후원안내 > 사랑의 손길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② 전화 신청: 02)727-225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홈페이지(www.caritasseoul.or.kr/html/dh/spon\_songil) - 사랑의손길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 저들과 같이하려 하였지만... (2마카 4,16ㄴ)



박진수 사도요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기원전 333년경 이소스(현재 터키 지역) 전투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마케도니아군은 다리우스 3세의 페르시아군을 무찌릅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알렉산더 대왕은 이집트와 페르시아 본토까지 정복하면서,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스의 변방에서 시작된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문화를 숭상했고,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에 그리스 문화와 사고방식을 전파합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을 'Ελλην(헬렌)의 후손이라는 의미에서 'Ελληνες(헬레네스)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가 확산되어 절정에 달했던 이 시기를 헬레니즘이라고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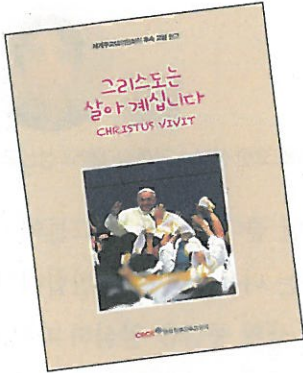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살아있던 때에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셀레우코스 왕조가 노골적으로 헬레니즘을 전파하였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아테네의 원로 한 사람을 보내어,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법을 버리고 하느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강요하였다.”(2마카 6,1)

적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 문화 앞에서 전통을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이들이 임금의 종교를 좋아하여,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안식일을 더럽혔다.”(1마카 1,43) 나아가 자신들이 따르던 율법과 전통을 멸시하고, “그리스인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을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2마카 4,15)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따라야 할 율법과 전통을 어기

고, 이방 민족의 것들만 좋다고 따르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성경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인들의 생활 풍습을 열심히 따르고 모든 면에서 저들과 같이하려 하였지만, 그리스인들은 그들을 적대시하고 억압”(2마카 4,16)하였다.

마카베오기가 전하는,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혹은 자신들의 것과는 다른) 문화와 사상 앞에서 정체성을 잃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화려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쉽게 잃어버리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자극적인 문화를 좋아하고, 헛된 우상들에 제물을 바치고, ‘거룩한 쉼’이라는 주일의 의미도 잊어버립니다. 또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과 교회 전통을 등한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가치관을 가장 훌륭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인 우리가 우리의 전통을 저버리고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마치 그리스인들이 유대인들을 보고 그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더욱 우습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마카베오기를 통해서, 세상의 것과는 다를 수 있는 우리들만의 고유한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 안에서 더욱 빛날 수 있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만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는 제15차 세계주교시노드의 후속 교황 권고로 이 권고문을 통하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젊은이에 관하여 그리고 젊은이를 위하여 성찰하라고 요청하며 격려를 보내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 요청과 격려를 받아들여 이번 문헌을 읽고 젊은이 시기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려 합니다.

**Q. 책에 대해 나누기에 앞서, 제목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나요?**



하느님께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유진 스텔라

미사 중 '하느님의 어린양'을 바치기 전에 신부님께서 감실의 문을 열고, 깊은 절을 하신 다음, 예수님의 몸을 제대로 모셔 올 때 묘하고 강한 기운이 성전을 휩싸는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마치 감실 안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문이 열리는 순간, 이 공간을 가득 채우시며, 바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듯했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도 강해,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기억이 납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느끼며 흘렸던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야훼 이레'를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

었던 저는 그 이후로 그리스도의 '살아 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커다란 선물을 받았습니. 뜬구름 잡듯이 이해하고 있던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이제는 제 삶의 방향을 이끄는 가장 주된 진리가 되었습니다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정호 미카엘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저는 가장 나다운 삶 혹은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이를 돌아해보면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라는 말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순간이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이 순간을 본당 청년회장을 하며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본당 청년회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더욱이 학업과 함께 이를 병행하느라 매 순간이 막막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힘들고 부족한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며 채워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저의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긍정 에너지와 열정으로 바꾸어 주었고, 그리스도께서는 매 순간 함께하시며 저의 부족한 부분을 은총으로 채워주시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어려웠던 공동체가 점차 활성화되고, 학업 또한 잘 마무리가 되었던 체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나의 부족한 부분을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매 순간 여러분 삶 안에 현존하시어 여러분의 삶을 빛으로 채우시며 모든 슬픔과 고독을 없애 주십니다." (125항)

Catholic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주보편집부에서 부서원을 모집  
합니다. 문의: 02)762-5071~2



청년주보 큐알(QR)

# 사람의 얼굴



신승환 스테파노 |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교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그가 누구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지요. 물론 겉모습만 보면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얼굴에 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온 나라가 멸망하고 오랜 바빌론 유배 생활을 겪은 뒤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사제들은 이 엄청난 고난의 역사를 통해 자신들이 누구인지 성찰하게 됩니다. 이들을 흔히 '돌아온 인텔리겐치아'라고 부릅니다. 민족이 겪은 고난을 반성하고, 나아가야 할 미래를 생각했던 사제를 비롯한 지식인들은 이런 반성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해가 창조 서사에 담겨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을 하느님에서 찾았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Imago Dei)을 따라 창조된 존재라는 고백은 이런 이해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얼굴을 자신의 본성으로 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본성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본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조 서사를 살펴보면 언뜻 하느님의 얼굴을 그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 본성은 당신의 '말씀'(로고스)으로 세상을 창조한 데서 비롯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존재가 하느님이십니다. 이 과제를 하느님은 인간에게 맡기신 거지요. 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창조 서사에 담긴 하느님 이야기는 인간이 바라는 본성, 인간의 인간다움을 하느님의 얼굴을 통해 표현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안고 있는 인

간은 하느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에 하느님의 명을 따라 그에게 합당한 이름을 붙입니다. 이로써 인간은 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가 되고, 그에 따라 존재하는 것들이 그 모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론적 존재가 창조 서사가 이해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얼굴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갈고 닦아 나를 그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의무입니다. 나의 얼굴은 하느님을 향해 있으며, 이 얼굴은 하느님을 향한 마음, 그 지향성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책임은 또한 다른 사람의 얼굴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나의 얼굴이 하느님을 향해 있듯이, 다른 사람을 향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하느님을 보게 됩니다. 하느님을 보고 싶으면 사람을 보십시오. 사람을 존중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안의 하느님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어떤 얼굴도 멸시받거나 고통 받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어떤 경우라도 인간은 신이 아니며, 우리 안에 감추어진 어두움을 부정할 수도 없는 존재가 인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서사는 곧 인간의 호기심 때문에 생겨난 모순적 상황을 금지된 열매를 욕망하는 모습에서 찾았습니다. 창조 서사에 담긴 인간 이야기는 양면적입니다.

## 2월 11일(주일)은 '세계 병자의 날'입니다

세계 병자의 날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16년 2월 11일 강대호 스테파노 신부(55세)
- 2019년 2월 5일 최영식 마티아 신부(72세)

### 교구청 알림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설연휴 휴관안내: 2월3일(토)~12일(월)

### 구역반장학교

대상: 구역장 · 반장  
때, 곳: 3월6일~27일(4주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교육비: 5만원(2월28일 접수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9 사목국 교육지원팀

### 2024 성경통독 아카데미

강의: 조창수 신부 /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때, 곳: 매주(월·화) 13시~15시, 월성 온라인 라이브 동시강의  
곳: (월) 가톨릭회관 3층, (화) 예수회센터 106호  
회비: 12만원(연회비) / 문의: 010-8889-5425(문자)

### 제59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때, 곳: 2월15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주례 및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 교육생 모집

위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육,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명동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 사목국 '성서못자리' 2024년 전반기 강좌 / 문의: 02)727-2379

접수기간: 2월6일(화)~29일(목) / 선착순 인터넷 접수  
접수: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http://www.samok.or.kr)) '성서못자리 신청' 통해 사전접수

1) **명동 오전 정기강좌(정기강좌 및 나눔터학교)**  
때, 곳: 3월11일~6월17일매주(월), 명동교구청내 강의실(15주 강의)  
강의시간: 10시30분~12시30분  
개강미사: 3월11일 11시30분, 명동대성당  
회비(교재 지급): 정기강좌 8만원, 나눔터 7만원  
강사신부 및 강의실 홈페이지 참조

2) **청년(마르코 복음), 직장인(정기강좌 5권) 성서못자리**  
때: 3월6일~6월19일 매주(수) 19시30분~21시(15주 강의)  
개강미사: 3월6일 19시30분, 명동 소성당  
수강료(교재지급): 청년 5만원, 직장인 8만원

3) **미주 온라인(zoom) 성서못자리 정기강좌(5권-동부 화요반 · 서부 목요반 / 3권-동부 화요반)**  
수강기간: 3월5일~6월13일(매주 1회 60분 강의 / 한 학기 15회 수업) / 회비: 8만원(수수료 포함)

4) **온라인 성서못자리(에드워드 플랫폼 활용)**  
수강기간: 3월4일~6월30일 / 회비: 10만원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미사

때, 곳: 2월5일(월) 오전 10시30분~11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내 마음의 복녘 본당' 미사)

때, 곳: 140차 미사 2월6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주기억할본당: 합홍교구 북청 본당, 신의주 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 온라인 가톨릭 교리학교

대상: 교리 봉사자, 교리 교사, 선교분과 및 교육분과 위원 / 교육기간: 3월~8월(6개월간)  
교육방식: 에드워드 온라인 교육  
회비: 8만원(2월23일 접수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자세한 사항은 사목국 홈페이지 알림 · 공문 게시판 참조 / 문의: 02)727-2066 사목국 교육지원팀

### 제136차 사회교리학교 기본과정 수강생 모집

가톨릭사회교리는 사회문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입니다 / 신청: 2월13일까지  
때: 2월19일~4월15일 매주(월) 19시~21시(8주)  
곳: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회비: 8만원(우리 454-0096011-13-001 천주교서울대교구)  
문의: 02)727-2431 사회사목국 정의평화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atholicjcp.or.kr](http://www.catholicjcp.or.kr)) 참조

### 순교자현양 신심미사와 하루일정 전국순례 안내

1) **순교자현양 신심미사(332회)**  
때: 매일 첫째주(화) 2월6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2) **하루일정 전국성지순례**  
때: 2월17일(토), 2월18일(일), 2월27일(화)  
곳: 이천 어능, 천진암, 양근성지  
신청: 2월5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http://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회비: 1인 5만원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 가톨릭학생회(KYCS-CELL)회원 모집

가톨릭학생회는 로마교황청 산하 국제가톨릭학생회(IYCS-International Young Catholic Students)에 가입되어, 활동과 나눔을 통해 또래들과 체험을 공유하고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잘 어우러지며 건강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가톨릭학생회로 자녀를 인도해 주세요  
대상: 가톨릭 신자 청소년(14세~19세)  
곳: 가톨릭 청소년회관(혜화동)  
문의: 02)742-4151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kycs.or.kr/cell/](http://kycs.or.kr/cell/))

### '서울대교구 혼인 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http://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 / 현장 또는 온라인 중 선택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I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 '슬픔 속 희망찾기' 자살유가족 프로그램 안내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1) **'슬픔 속 희망찾기' 2월 유가족 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곳: 2월17일 매월 세번째(토) 10시(목죽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집전사제: 이창영 신부

2) **'슬픔 속 희망찾기' 유가족 자조모임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  
프로그램: 독서(대면 · 비대면), 아트테라피, 마음명상, 마음돌봄, 컬러링, 글쓰기 등  
프로그램 시간: 홈페이지(3079.or.kr) 참조  
신청기한: 2월29일까지 접수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전화(02-727-2495) 접수  
총진행일정: 3월~12월까지(매월 1회 총 8회기 모임예정)

###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불학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2월1일(목)~23일(금) / 3개월 수업(3월~5월)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불학기	실기전문 과정	오르간 · 피아노 · 반주 · 성악 · 합창지휘 · 작곡 · CCM · 관악기 · 현악기 · 바로크악기 · 국악
	양상반	그레고리오성가(남·여) · 성악(남·여) · 플루트 · 현악 · 목관 · 리코더 · 클래식기타 등

### 한국교회사연구소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시성기원 성지순례

희망의 순례자(한국교회사 기초부터 완주까지)

3월9일(토)	청양다락골 태어나신곳(세터)	4월10일(수)	오두재교우촌 전복안내
5월11일(토)	신시도 체류지(세만굴)	6월8일(토)	남방재성지
7월6일(토)	명애목성지	8월15일(목)	103위 시성터·124위 시복터
9월7일(토)	김화교우촌(김화성당)	10월9일(수)	접푸리(농청자박물관)
11월 9일(토)~10일(일)		죽림굴(미사) 전인리성지	

신청: 입금순 45명까지 완주희망자  
10km 정도 도보순례 가능한 분 / 여행자 보험 기념품 및 자료 제공 /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





**수요 사순 특강·미사(도미니코 수도회)**  
 때: 2월14일~3월20일 매주(수) 19시30분  
 곳: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 문의: 010-5075-3513

**2024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원서접수: 2월16일(금)까지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그리스도 레지오회 강좌·모집** / 문의: 02)2258-8983  
 1) ENGLISH BIBLE STUDY-창세기(인물 소개)  
 때: 2월23일부터 (금) 10시~11시30분(12회)  
 곳: 레늄크리스티 영성센터(서초동)  
 홈페이지: www.legionariesofchrist.kr  
 2) 해외가톨릭사립학교 신입생 모집  
 대상: 초5~고1 / 수도회 운영 해외 학교 법인  
 미국, 아일랜드 단·장기 학교 입학 및 대학 컨설팅  
 홈페이지: www.oakinternational.co.kr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카리타스 합창단 신입단원모집**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소속  
 대상: 55세 미만 남녀 교우 / 연습: 매주(월) 19시  
 가톨릭성가 또는 자유곡 / 010-2244-3602 박혜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1965년 1월 이후 출생자로 심신이 건강한 남녀  
 봉사 분야: 병원 안내 / 모집: 2월23일(금)까지  
 문의(접수): 02)2258-5781, 2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상반기 신입단원 모집**  
 대상: 만 18세~만 39세 남녀 가톨릭 신자  
 활동: (일) 12시 교중 미사 및 대축일 미사  
 오디션: 3월9일(토) 13시30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3층  
 3월7일(목)까지 이메일 접수(명동성당 홈페이지  
 (PC버전) 단체 모집) / 문의: 010-3211-5195 (문자)

**2024년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 모집**  
 대상: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복음적 삶을 살아가려는 건진 받은 16세 이상 교우  
 지원서 교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308호  
 2월28일까지 접수 / 문의: 02)779-3881(근무일: 토·일·월), 010-9600-6358 작은형제회 수도원, 02)793-2070 콘벤투알 수도원, 010-3371-8790 카푸친 수도원, 010-8477-6489 청년회(유프라, 만 35세 미만)

**마니피캇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서울대교구 소속 마니피캇 어린이 합창단에서 함께 노래할 어린이들을 기다립니다  
 대상: 초2~6학년 가톨릭(예비) 신자(3월 기준)  
 연습: (화) 18시·(일) 13시-둘째주 명동대성당 10시 미사  
 때: 2월27일(화) 19시30분 / 문의: 02)338-7831  
 곳: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전철 2호선 흥대입구역)  
 오디션: 자유곡 1곡 및 음감테스트  
 접수: 홈페이지(www.yju.or.kr) 부서소개-게시판 참조

**명동대성당 가톨릭여성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활동: (일) 오전 11시 미사, 매월 둘째주(일) 영세 식 봉헌 / 대상: 30세~50세 여성 교우  
 연습: 평일 (목) 저녁, 주일미사 전후  
 때: 2월18일 13시 / 문의: 010-6303-1365

**미사**

**살레시오와 꿈 월레미사** / 문의: 02)828-3522  
 때, 곳: 매주(월) 11시, 살레시오회 관구관(신길동) 4층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레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2월15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와 성모신심미사**  
 때: 셋째주(토) 2월17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2)727-2489

**군중후원회 월레미사·특강**  
 강사: 김영태 신부 / 문의: 02)776-0457  
 때, 곳: 2월5일(월) 14시, 국군중앙교좌성당(전철 4호선 신용산역 1번 출구, 용산우체국 뒤 왜곡개성지 내)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성서인문학 강좌**  
 대상: 후원회원, 성서인문학 강좌에 관심있는 분  
 때, 곳: 2월7일(수) 14시(미사)·15시(강좌),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강사: 김병수 신부  
 문의: 02)3673-2525 미사, 02)3673-2528 강좌

**서울고속버스터미널(준)성당 미사** / 문의: 02)535-6604  
 곳: 서울 고속터미널 경부선 10층(옥상공원 남산방향)

(화·금)	12시 미사	(토)	13시30분(토요 주일 미사)
(일)	11시·17시·21시(2월18일 사순 제1주일 재개)		

**안내**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문의(예약): 010-3173-2665 최영민 신부(예수회)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모,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인 수녀(성빈센트드폴자비의수녀회)

**대전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전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점,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전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꽃 순교성지, 서릿길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esort.modoo.at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일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모지 하늘의 문 성당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봉양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4년 하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유관단체 알림**

**떼제노래 작은 피점·주일 미사** / 문의: 02)744-0840  
 대상: 하늘을 갈망하는 모든 이, 청소년·청년 환영  
 때, 곳: 매월 세번째(토) 2월17일·3월16일·4월20일  
 16시~17시45분, 햇살사목센터(주최, 회화로2길20) 성당

**직원모집**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모집분야: 편집, 판매, 재단·제본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 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1886@catholicbook.kr)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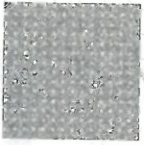
**일원동성당 사무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성실한 신자로 사무 행정 및 간단한 회계 업무 가능한 분 / 이메일 문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 2월18일(일)까지  
 이메일(tyhj6362@seoul.catholic.kr) 및 우편(우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109길38 일원동성당) 접수

**서울대교구 직원 모집(주방-해화동·시설-보문동)**  
 대상: 세례받은 분 / 이메일 문의  
 분야: ① 주방근무자 0명(계약직) ② 시설관리자 0명(소방안전·도시가스안전 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분야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2월18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직원·봉사의료진 모집(성가복지병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문의: 02)940-1503 / 이메일: hfh1990@hanmail.net  
 직원: 내과 전문의 0명, 시설기관 및 정기기사 0명  
 봉사자: 피부과, 이비인후과, 인과 봉사의료진 모집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효준 신부
성 마리아 재속회	수시	양성소	02)980-0385, 010-6462-0385
성심수녀회	2월17일(토) 14시~17시	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9284-0304
천주교서울교구제신교회	수시	선교회	010-2749-4596, 02)749-4596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수시	분원(보문동)	010-9353-1773 김 토마스 수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 디지털 앨범

가톨릭성가  
연중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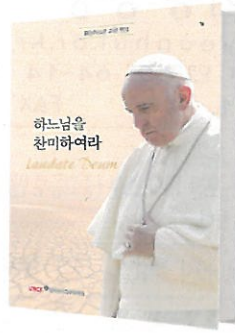


성바오로딸수도회  
문의: 02)944-0895

가톨릭성가 32~57년까지 수록된 디지털 앨범이다. 가톨릭 합창단의 혼성 4부 합창과 명동성당 파이프 오르간 음색은 평소에 들어오던 연중 시기 성가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게 한다. 멜론, 지니, 스포티파이, 유튜브뮤직 등 국내외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으며, 음원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은 유튜브 채널 '바오로딸뮤직앤'에서 감상할 수 있다.

📖 신간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48쪽 | 5천원  
문의: 02)460-7582~3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의 후속으로 나온 교황 권고.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의 원인을 살피고, 기후 위기가 우리 세대가 당장 해결해야 할 생존의 문제이므로 하루속히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에 나서도록 권고한다.

🎤 공연

아해 강아지똥



일시: 2월 7일(수)~17일(토)  
장소: 서울남산국악당 | 입장료: 5만원  
문의(예약): 02)507-6487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자참시 주보 1부로 10명 30% 할인

2월 7일부터 17일까지 서울남산국악당에서 그림동화 <아해 강아지똥>이 무대에 오른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고 여기던 강아지똥이 자신의 몸을 희생해 민들레 꽃으로 다시 태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았다.

🎤 공연

혜화나무  
클래식 포유  
'봄이 오는 소리'



입장권: 1만3천원(기업은행 005-116491-04-019 (제)천주교성바오로딸수도회)  
신청-문의: 010-9759-0882 (문자)

혜화나무 <클래식 포유> '봄이 오는 소리'가 3월 9일(토) 4시부터 80분간, 바오로딸 혜화나무 지하 공연장에서 열린다. 김수연 바이올리니스트와 김성진 클래식 기타리스트가 들려주는 봄의 소리를 온몸가득 느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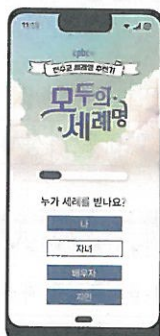
가톨릭 OTT  
cpbc 플러스

모두의 세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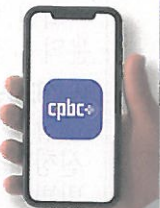
'모두의 세례명'은 월(月), 성별, 키워드 등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꼭 맞는 천주교 세례명을 추천해 주는 웹서비스입니다. 예비신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해설과 캐주얼한 일러스트로, 24개의 키워드(용기, 희망, 지혜, 기적, 치유, 한국 등) 중 하나를 선택해 각자의 삶의 지향점을 바탕으로 성인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의 세례명'을 통해 현재 총 400명의 가톨릭 성인 해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자들이 '모두의 세례명'을 통해 가톨릭 성인의 생애와 신앙의 모범을 알고 세례명을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의 세례명'은 PC와 모바일을 통해 가톨릭 OTT 'cpbc 플러스'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pbc 플러스 다운로드

iOS용

안드로이드용



제2시대문 · 마포지구 대표본당  
천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진현구(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법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설날 합동위령미사 안내

2월 9일(금)	오전 6시
2월 10일(토) 설날	오전 6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9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11시 (합동위령미사)
2월 11일(주일)	주일미사와 동일
2월 12일(월)	미사 없습니다.

\* 설날 합동위령미사 신청은 2월 6일(화)까지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날 당일 합동위령미사에는 연도 및 분향이 있습니다.

\* 연도 : 오전 6시미사(미사 후 연도)  
오전 9시, 11시미사 (미사 전 연도)

◎ 2월 9일(금)은 사무실 휴무입니다.

◎ 연령회 미사

일시 : 2월 6일(화) 오전 10시  
매월 첫번째 화요일 10시에 연령회 미사(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세계 병자의 날 미사 안내

2월 11일(주일) 미사는 환우들과 환우들을 돌보는 모든 분들을 위해 봉헌합니다.

◎ 재의 수요일 미사

2월 14일(수)은 사순절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입니다. 매 미사 중에 머리에 재를 얹는 예식이 있습니다.(단식/금육)

◎ 성지 회수

2월 11일(주일)까지 성전 입구, 사무실 입구에 있는 성지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연성회(70대) 모임

일시 : 2월 15일(목) 오후 5시 30분 / 201호  
\* 2부에는 식사가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김무영 요셉 총무 (010-3891-4300)

◎ 2024년 첫영성체반 신청안내

대상 : 초등부 3~6학년  
신청기간 : 2월 3일(토)~25일(주일)  
방법 : 온라인 신청서 및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첫모임 : 3월 2일(토) 오후 3시 미사 후 304호  
자세한 사항과 문의처 : 온라인 신청서 참고



◎ 설날을 맞아 여성구역회에서 떡국떡과 만두를 판매합니다.

일시 : 2월 3일(토) 오후 3시 ~ 4일(주일)  
가격 : 떡국떡(1.8kg) 10,000원  
만두(김치/고기) 15,000원

◎ 전례 말씀 봉사 참여 신청안내

2024년 사순시기 동안 전례 독서를 통하여 말씀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 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사순시기 중 수요일 오전 10시 미사 독서)  
신청 : ~ 2월 4일(주일)  
문의 : 전례단 (010-6460-0801)

◎ 청년배움터바로로 69기 새내기 모집

대상 : 만 40세 이하 청년 누구나  
(청년, 냉담자, 예비자)  
모집 : 2월 4일(주일) ~ 3월 16일(토)  
여는마당 : 3월 17일(주일) 오후 3시 / 304호  
문의 : 큰일꾼 이사벨라 (010-2107-3054)

◎ 교무금 책정 현황 (2024. 1. 28)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3년 책정율	2023년 납부율
2,023	389 (19.2%)	319 (15.8%)	43.7%	42.3%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감사헌금 (1월 22일~28일)

곽선모	오천원	강 신	오만원
여재원	오만원	유지은	일십만원
조호정	일십만원	익 명	삼십육만원
진영문	일십만원	진현주	오만원
진현수	오만원	은희봉	오만원
익 명	이십만원	익 명	일십만원
이대행	일십만원	박순자	일십만원
홍선호	오만원	익 명	일십만원
익 명	일십만원	장정은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연중 제4주일)

교 무 금 ..... 11,652,000원  
주일헌금 ..... 4,782,150원  
해외원조주일 2차헌금 ..... 1,755,000원

입당	55 봉헌	504,210,221	성체	165,182,2	파견	437
----	-------	-------------	----	-----------	----	-----



주님을 찬미하여 라 주님은 마음이부서진 이를 고쳐 주신다